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거룩을 지키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사랑부 여름 수련회

주제: 예수님 이야기 (마 16:16)

일시: 8월 14일(월)~15일(화) 장소: 숲속의 아침

에바다부 여름 수련회

주제: 언약을 붙드는 믿음 (히 1:11)

일시: 8월 14일(월)~15일(화) 장소: 충현기도원

청년1부 주관 금요 헌신집회

일시: 8월 18일(금) 금요일집회

금주 기도원 화요일집회 휴무

일시: 8월 15일(화)

충현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완료 및 운영시작

시범운영: 8.14(월) ~ 19(토)

정식운영: 8.21(월)부터 * 자세한 사항은 5면 참조

오늘날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이 범람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속 문화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속의 중심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거룩을 지켜냈고, 위로부터 힘이 주어졌습니다.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도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었고, 세속 도시의 한 가운데서, 화려함의 극치인 왕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비결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더 집중하며 거룩하게 우리를 지키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있는 주차 안내

1. 본당 앞마당 및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즉시 이동하기!**
2. 통로 주차 시 기어는 중립,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기!
3.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4. 예배 후 30분이 지나면 다음 예배로 인한 통로 주차로 출차가 어려움!
5. 교회 주변 **이면도로 및 거주자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기(과태료 부과됨!)**



※ 중직자는 제2교육관 지하 3층과 4층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부 제6회 ‘헌신자의 날’

중보기도 사역과 예배기도단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중보기도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토) 11:30 - 13:00 장소: 갈릴리홀

참석 신청: 8월 13일(주)까지 중보기도부 행정실

(식사준비 관계로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충현 평생대학원 가을학기 강좌 안내 및 신청

* 자세한 사항은 7면 참조



2023 순 전도행사

와 보라!

순 '새가족의 날'

2023.8.20(주) ~ 9.3(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새가족 초청

2023.9.8(금)

새가족 초청 교구모임

2023.9.10(주)



교회설립 70주년

전교인 부흥회

주제: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8. 30(수)~ 9.01(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충현교회 본당

8월 30일(수)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원로)

본문: 에스겔 36:26-28

제목: 새 언약의 능력으로

8월 31일(목)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

본문: 창세기 45:1-5

제목: 충현 성도의 세가지 고백

9월 1일(금)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본문: 요한복음 21:15

제목: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말라기와 기념책

(말라기 3:13-18)



2023년 8월 13일 · 제1788호

12권에 이르는 소선지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9권의 책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기록치 않은 삶의 현실 앞에 낙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장을 주는 3권의 책(학개, 스가랴, 말라기)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절정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지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말라기에서 추구하는 모델이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 4:1)”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 1:1)” 말라기는 서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 1:2a)”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제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당당함이자,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 1:6)”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배)조차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8)”,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말 1:13)”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은혜가 아닌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부적절한 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가리켜 말라기 3장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3-15절)” 수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그들은 오히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선포했으며, ‘교만한 자

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세속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속주의는 오래 전부터 기독교를 물리적으로 꺾박하기보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선택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타인에게 권하지 말고, 그저 예배당 안에서 당신들끼리 믿으며 살라”고 합니다. 기독교 중심적 문화에서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삶이 불편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욕망에 충실한 삶을 방해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리켜 ‘자유를 억압하는 힘’ 혹은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성도의 삶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 앞서 살펴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말 4:2)”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남겨 두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아끼 주시며,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념책과 유사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목상을 하다 보니 생명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지만, 기념책에는 그가 한 일 중 기념될 만한 일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기념책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부끄러운 구원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책에 기록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념’의 원어가 명확하게 사용되는 곳은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대목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기념책의 의미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 2:5-6)” 기념책에 기록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뿌리는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셔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듯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법이 있오되, 불의함이 없는 그들의 성품과 마음으로 인하여 화평함과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약백성으로서 죄악에 빠진 이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이야말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말라기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행할 많은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Malachi and the 'Book of Remembrance'

(Malachi 3:13-18)

Rev. Kyu Sam Han

Twelve books of minor prophets are composed of nine books which inform 'how to survive as the people of God in the life of Babylonian captivity' and three books (Haggai, Zechariah, Malachi) which give challenges to the people of God who are discouraged in the face of difficult reality of life even though they came back from Babylonian captivity. Among them, the zenith of Malachi, which is the last book of the Old Testament, is "But for you who fear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sha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You shall go out leaping like calves from the stall.(Mal 4:2)". This is a word that is necessary for a person with a weak body and mind, but also an important point that we should examine to whom the light of healing is shone. 'You who fear my name', that is, the one who fears the name of God is a model pursued in Malachi, the one to whom the ray of healing is shone, and the one to whom the blessing of God is present. "For behold, the day is coming, burning like an oven, when all the arrogant and all evildoers will be stubble. The day that is coming shall set them ablaze, says the Lord of hosts, so that it will leave them neither root nor branch.(Mal 4:1)" The one who does not fear God is 'the one who is arrogant, and the one who is doing evil'. By the way, the people of God in the period when Malachi was being written pretended to fear God on the outside. "The oracle of the word of the Lord to Israel by Malachi.(Mal 1:1)" Malachi clearly warns the people of God who pretended to fear God at the beginning. "I have loved you," says the Lord. But you say, "How have you loved us?(Mal 1:2a)". God himself told the people of Malachi period, but they asked back, 'God, do you really love us?' "Though God says he loves us, the fact is not so important in my life. I want to be loved by the world.", which was wrong boldness in front of God, and proof that they are the people of God by pattern only. "A son honors his father, and a servant his master. If then I am a father, where is my honor? And if I am a master, where is my fear? says the Lord of hosts to you, O priests, who despise my name. But you say, 'How have we despised your name?(Mal 1:6). People in the period of Malachi, who couldn't feel moved by the love of God, offered even sacrifices(worship) to God in a formal way. "When you offer blind animals in sacrifice, is that not evil? And when you offer those that are lame or sick, is that not evil? Present that to your governor; will he accept you or show you favor? says the Lord of hosts.(Mal 1:8)", "But you say, 'What a weariness this is,' and you snort at it, says the Lord of hosts. You bring what has been taken by violence or is lame or sick, and this you bring as your offering! Shall I accept that from your hand? says the Lord.(Mal 1:13)" They thought offering sacrifices to God was a weariness, not a grace, didn't prepare sacrifices with a thanksgiving heart, and brought sacrifices improper for God to accept. Referring to this, Malachi expresses, "You are robbing me."

Despite the warning of God

Despite that God warned those who feared God on the outside but despised Him on the inside through Malachi, they did not change the way of life. "Your words have been hard against me, says the Lord. But you say, 'How have we spoken against you?' You have said, 'It is vain to serve God. What is the profit of our keeping his charge or of walking as in mourning before the Lord of hosts? And now we call the arrogant blessed. Evildoers not only prosper but they put God to the test and they escape.(vv 3:13-15)" Those who belonged to a numerically absolute multitude were 'against God by wicked words', proclaimed 'to serve God is in vain', and said the arrogant are blessed. The appearance of those who do not fear God is in the same context as secularism today. Secularism, from long ago rather than persecuting Christianity physically, says "Christianity is not an absolute truth, but only one of many values in the world. The

freedom of choice is respected, therefore, do not persuade others, but just stay living and believing within the church". This is because 'those who did not fear God and felt uncomfortable with the life of observing the morality of Christianity-centered culture drove the value of Christianity interrupting the life faithful to desires to 'a force oppressing freedom'.

The life of a believer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Then those who feared the Lord spoke with one another. The Lord paid attention and heard them, and a book of remembrance was written before him of those who feared the Lord and esteemed his name.(v. 16)" "You who revere my name(Mal 4:2)" that was aforementioned is the very "those who fear God" and "those who esteem his name". Even in a world where the absolute majority of people pretend to fear God, God has left those who fear God. "They shall be mine, says the Lord of hosts, in the day when I make up my treasured possession, and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s his son who serves him.(v. 17)" God makes them His treasured possession, spares them, and writes them in the Book of Remembrance. A book similar to 'the Book of Remembrance' in the Bible is 'the Book of Life'. While meditating, I've come to think that in the Book of Life only a name of a person is recorded, but in the Book of Remembrance is likely to be recorded a memorable thing among what he has done. Even though a name is recorded in the Book of Life, if nothing is recorded in the Remembrance Book, it can be an appearance of shameful salvation. If so, what is the content that will be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The text says those who fear God have been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The place where the original language of 'remembrance' is clearly used in the Bible is a story of 'a woman who broke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for Jesus'. What Jesus said,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is the very meaning of the Book of Remembrance. "My covenant with him was one of life and peace, and I gave them to him. It was a covenant of fear, and he feared me. He stood in awe of my name. True instruction was in his mouth, and no wrong was found on his lips. He walked with me in peace and uprightness, and he turned many from iniquity.(vv 2:5-6)" The root of a life of fearing God which will be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is the covenant of life and peace made with Levi. God promised that He remembers the names of those who fear Him and revere His name, records them in the Book of Remembrance, and allows them rays of healing so that they go out of the pen and frolic like well-fed calves. Owing to their nature and mind that have the laws of truth, but no unrighteousness, God goes with them in peace and honesty, and through their lives, those who were dyed with secularism turn away from sins. Even though the world despises God, and says God does not exist, owing to the lives of those who fear God and go with God, the opportunity for the world to be turned back is given. The life of the people of the covenant that leads the people who have fallen into sins to turn away from sins can be the standard that can be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I am confident that our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one step further from here, following the standard of Malachi, a blessed life in which lots of what we will do will be recorded in the Book of Remembrance will appear to us.

영역·이울의



베트남 선교 후기

- 베트남 호치민, 7월 6일(목) ~ 7월 15일(토) -

코로나로 막혔던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암수술을 코로나 기간, 선교가 막혔던 시간 가운데 받게 하셔서 선교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베트남은 공안의 위협과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베트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선교는 막혀있지만 베트남 현지 사역자들을 잘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도록 기도과 물질로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풍성한 천국잔치를 경험하게 하였고 우리 팀원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베전도사님 사역지로 가는 것이 공안의 위협으로 어려워지자 대신 베전도사님 온 가족을 모시고 안전한 지역에 와서 그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또 필요한 컴퓨터 교육, 악기연주 교육, 전도방법 교육 등으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웹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배우게 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세워 그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신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현지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온라인으로 양육하는 일까지 정말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베트남 땅을 내려다보면 수많은 집들에 놀라고 땅에서는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에 놀라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인구들 중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땅에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이 분들의 사역을 돕고 협력함으로써, 복음이 더 많이 베트남 구석구석에 전파되고 베트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라 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트남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여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종원 권사

직장 생활, 결혼과 육아로 정신없던 지난 15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잊었던 선교인대 직장 생활 이후 처음으로 가게 된 단기선교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온라인 선교를 통해서 베트남에 대한 꿈을 갖긴 했지만 '실제로 대면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이제 생업과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을텐데' 라는 걱정으로 고민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베트남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놀랍게 이번 선교 아니 베트남의 복음화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그 사역자와 동역하는 젊은 베트남 친구들을 준비하셨고 또 시골 교회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전 선교에서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선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는 도구로 사용 될 뿐이고 현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새 힘을 얻고 또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트남에 임하신 놀라운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현지인 사역자이신 웹목사님을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베전도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을 하며 또 현지에 필요한 전도와 컴퓨터 사용 찬양에 대해 가르쳐 주며 '복음이 너무나 들어가기 힘든 베트남 시골 교회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셨구나'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소천하신 목사님 가정을 방문 하였을 때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또 그 사모님이 우리를 배척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저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고 사모님이 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목사님 소천 이후에 본인이 주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며 사역 보고 마칩니다.

김정민 안수집사



강원 양구 소망교회 동역교회 후기

- 6교구 2팀, 7월 28일(금) ~ 7월 30일(일) -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아주신 12명의 팀원들이 은혜 가운데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모임때 팀장님이 이번 사역에서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기에 하루에 한번 씩 우리가 섬기게 될 양구 소망교회와 팀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떠나는 날까지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양구 소망교회는 하용관 목사님과 사모님이 20여 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사역해 오시는 곳인데 지방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노년층 중심이고 일꾼으로 길러 놓은 젊은 층은 타지로 이사 가거나,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사역이 힘을 잃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사역첫날 마을마다 조로 편성해서 초청 잔치 초청장과 전도지를 돌리고 다닐 때 한 연세가 많으신 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니 그 분의 마음이 열리고 영접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실 것을 약속 받고 눈물로 기도드리고 나왔는데 주일날 약속하신 그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며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분을 통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니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 휴가철이라 밀리는 도로를 뚫고 오신 미용팀과 협력하여 전도사역을 하며 찬양과 율동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셋째날 초청 잔치에는 양구 소망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복음의 말씀을 들려 드리고 준비한 찬양과 율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교를 쌓고 맛있는 삼계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 기도한대로 양구 소망교회가 저희 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동안 뿌려진 씨앗들을 저희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정숙자 권사



충현 주차운영 관리 시스템 시작

번호인식 주차 차단기가 한 주간(8.14(월)~8.19(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등록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 차단기가 개폐됩니다.

1) 출입시 오류가 발생한다면(차량 등록한 충현교회 성도)

1. 차량번호 잘못 기재한 경우
 2. 차량번호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 옳기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한 경우
- * 동문안내실에 문의하시면 번호 확인 후 열어드림 (02-552-8200(구내 480))

2)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분(충현교회 성도가 아닌 경우)이 출입하실 경우

1. 예정된 차량의 경우 미리 차량번호를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방문등록 후 1일 입차 가능
2. 방문등록 없이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 차량은 방문 부서에 유선(인터폰) 확인 후 입차(대기시간 발생 가능)
3. 카페드림을 이용하시는 외부 손님들은 도보로 이용

3) 예매가 있는 시간[주일(전일), 수요일(10:00 ~ 14:00), 금요일(17:00 ~ 21:00)], 결혼식 등 대외 행사가 있는 시간은 완전 개방



몽골 2팀, 3팀 단기선교 후기

- 몽골 울란바타르, 7월 26일(수) ~ 8월 1일(화) -

20대에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섬기고 사랑해 보던 저에게 선교라는 것은 그 무게가 아주 무겁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2달 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현지 사역의 진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많이 고민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가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많은 프로그램과 준비물 보다는 현지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과 사랑과 섬기는 마음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참빛하늘나라 교회에서 라우단다쉬 목사님의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설교 말씀은, 복음이 이 땅에서도 참 동일하구나를 느끼게 해주시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멋진 건물 안에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듣는 말씀과, 물도 잘 나오지 않는 30평 남짓 되는 덥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작은 옛 건물에서 30명 정도가 짹짹 눌러 앉아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혀 다르지 않음이 우렁찬 몽골 땅의 성도분들을 따라 저를 자꾸만 '아멘'하게 하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만남을 허락해주신 모든 환우 분들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나누어 주었던 약과 간식과 선물들이, 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그때도 지금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부터 현지에서의 선교 사역 중에 아프고 다치는 일 없이 늘 웃으며 열심히 함께 해준 청년 동역자들과 더 낮은 곳에서 함께 섬겨주신 의료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팀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정재영 팀장님과 회계를 맡았지만 모든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신 신유현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을 끝이지 않고 말씀으로 나서는 충현교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년1부 김동욱

몽골 2팀으로 복음 사역에 나섰다. 2015년 이후 다시 찾은 몽골 시내에는 많이 변했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복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렸음을 볼 수 있었다. 주님을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웠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 쉬고 있었다. 많은 어린이들 모습 속에서 미래가 보였고 힘써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에 감사했다. 우리는 노방전도와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에 들어갔다. 찬양과 율동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천지창조와 구원열차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먹물과 맑은 물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선교사들이 5~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들이 기뻐고 아이들의 천국잔치였다. 주일은 몽골 2팀과 3팀, 현지 교인들이 모두 모여 은혜의 예배를 드렸다. 좁고 덥고 복잡했지만 모두의 즐거움이였다. 목사님 말씀에 깊이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고 성령을 의지해서 섬기는 천국 일꾼들로 인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하면서 우리는 아기 목사님이 설립한 시골 교회로 출발했다. 거칠고 막막한 도로를 350 킬로를 달려서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예배드리고 전도팀과 어린이 사역팀으로 나누어서 빨리 움직였다. 이곳저곳 누비며 전도지와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니는데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믿음의 자녀들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시기로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남을 경험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게을렀고 탐욕에 빠졌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 열심을 다해 전도하는 예수님 닮은 시골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주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았던 시간이였다. 이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이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기도한다.

이영순 권사



20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가을 학기 (10기)

강좌 소개 1 (영성, 어문학부)

충현 평생 대학원 2023년 가을학기(10기)가 개강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의 성원과 참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도 영성, 교양, 건강, 음악 등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내 전문 강사들과 함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었으니 알찬 가을 수확의 기쁨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권면 부탁드립니다.

- 1. 대상: 충현교회 성도 및 타교인 및 일반인
- 2. 교육 기간 : 2023. 9. 13(수) ~ 11. 10(금) (총 8~10주), 주중 (수/목/금)
- 3. 교육 방법 : 대면 강의 및 온라인 (Zoom 혹은 유튜브 동영상) 강의
- 4. 교육 내용 : 5개 학부(영성학부, 교양학부, 어문학부, 건강학부, 음악학부) 38개 강좌 (신규 4강좌 포함 대면 31개 강좌, 영상 강의 7개 강좌)
* 요일 및 시간이 다를 경우 중복 신청 가능, 영상 강의는 모두 중복 신청 가능
- 5. 수강료 : 없음. (단, 강좌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나 도서는 본인 준비) * 중식 제공 (12:00 ~ 12:30 시간 준수)
- 6. 특전 : 영성학부 (기초 헬라어 II, 기독교 세계관)에 한하여 수료 시 2학점 부여
- 7. 수강 신청 : 충현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구글 설문지, 쿠팡 코드 링크로 작성 제출, (23. 8. 11(금) ~ 9. 10(주일))
*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8. 문의 : 태일희 권사 010-2716-5407



학부	강좌
영성학부	기초 헬라어 II / 기독교 세계관
어문학부	기적의 수어 첫걸음 / 찬양 중국어 / 영어 성경암송 / 일본어 중급 / 일본어 초급
교양학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자녀 양육 / 닥종이 공예 / 에세이 교실 / 자서전 쓰기 / 시낭송, 성시낭독 / 책나눔 /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여행-초급, 중급 / 스마트폰 기초반 / 스마트폰 활용반 / 교정 메이크업 / 색연필화 / 사귀의 대화 / 스피치와 리더십 / 서예- 초급, 중급
건강학부	건강 걷기 Walking with Jesus / 수지침 / 건강 스트레칭 & 근육저축
음악학부	즐거운 성악 발성 / 팬플룻- 기초, 기존 / 기타 / 하모니카 / 우쿨렐레 / 만돌린 / 플룻 / 찬양 Q&A2 / 재미있는 교회 음악사2

2023년 가을 학기(10기) 강좌 소개1 - 영성 + 어문학부

학부	학과	강의 시간	내용
영성	기초 헬라어 II (이기영 목사)	영상	(영상강의- 매주 목요일 업로드) 헬라어 성경 해석 능력을 갖추는 것은 성경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독해에 꼭 필요한 핵심 문법을 반복 학습하여 헬라어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이 됩니다. 1학기 강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동사와 명사의 변화에 대해 복습하고 동사의 각종 시제(현재 수동태, 미완료 수동태, 미래 수동태 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영성	기독교 세계관 (최광수 집사)	영상	(영상강의- 매주 목요일 업로드, 매일 단톡방 운영) 창조, 타락, 죄, 생명 윤리, 성윤리, 재정 관리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계관을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구별된 복음의 신자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청소년부터 모든 학부모, 모든 성도들이 한번쯤은 짚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세계로 오세요. (*지난 학기 동영상으로 12주 과정입니다.)
어문	기적의 수어 첫걸음 (강가일 사모)	목요일	목요일 10:00-12:00 (*1년 과정으로 2학기에는 신입생은 받지 않음.) 손으로 대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핵심 기초 단어와 수어 찬양으로 수어 대화 가능하도록 공부합니다. 수어를 활용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교재는 별도 구매)
어문	찬양 중국어 (원성수 집사)	영상	(영상강의- 매주 목요일 업로드) 중국어를 활용한 중국선교를 바라보며 중국교회의 찬양에 관한 느낌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찬양 자체를 이해함과 동시에 가사에 적용된 문법적 요소를 분석하여 중국어 학습도 병행합니다. 중국어와 중국선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어문	영어 성경 암송 (신보경 집사)	영상	(영상강의- 매주 목요일 업로드, 매일 단톡방 운영) 이번 학기에는 요한복음 15:1-17 말씀 암송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심령에 새기며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은 쉬운 듯 하면서도 암송하기는 어려운 본문이지만 혼자자 아니라 함께하면 더 오래 힘내어 갈 수 있어요. 매일 8주 동안 한주에 2-3절씩 영어로 외우면서.. 영어의 초보도 반복하시면 암송 하실 수 있어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 암송하려는 마음의 결단과 성령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어문	일본어 중급 (장철환 장로)	수요일	대면 강의 : 수요일 오후 13:00-14:30 (*선착순 10명 이내)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통한 문법과 회화를 배워 그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 일본 선교에 관심 있으신 성도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일본어 기초 문법과 생활 회화, 선교 관련 회화 위주로 진행됩니다.
어문	일본어 초급 - 신규 (김민아 강사)	목요일	대면 강의 : 수요일 오후 14:30-16:20 (*선착순 10명 이내) 의외로 접근하기 어려운 언어인 일본에 대한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초 과정을 섭렵할 수 있도록 현직 일본어 전문 강사님께서 기초부터 일본어 문자와 발음을 배워 인사말과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본어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일본어 문자, 발음, 인사말, 자기 소개 및 숫자, 명사, 형용사, 동사의 활용에 대해 배워봅니다.

23년 충현평생대학원 가을학기 "2day 스마트폰 기초 클래스" 특강

1.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원하는 성도 선착순 50명
2. 교육 기간: 23.8.26(토), 9.2(토) / 2day 특강 (한 주에 1회 교육, 총 2주간)
10:00-15:00 (오전, 점심, 오후)
3. 교육 내용: 1주차 - 스마트폰 설정, 카카오톡, 유튜브 활용, 키오스크 등
2주차 - 앱 활용에 집중, 길찾기, 대중교통 등의 일상생활 앱
4. 수강료: 20,000원 (※중식제공)
5. 신청: 충현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구글 설문지, 큐알 코드 링크



제3회 CMTC 훈련

일 시: 23년 8월 20일(주일) 16:30 (1차), 23년 8월 27일(주일) 16:30 (2차)

장 소: 베다니홀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시: 23년 8월 23일(수) 수요일예배 후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8월 정기당회 일 시: 8월 14일(월) 오후 7시

예배 담당(8/16~8/20)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8/16	수요 I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 9:1-8) 박동진 목사	박성덕	안정민
8/18	금요집회	충현교회 5대 목표(2) - 천국일꾼 양성 (고전 4:1) 한규삼 담임목사	권순동	
8/20 장학증서 수여식	주일 I	첫째 계명,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12:28-34)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김태식
	주일 II		이성환	이성섭
	주일 III		윤준식	임병익
	주일찬양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삶 (살전 2:1-10) 윤성복 목사	임진실	홍순혁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 새벽기도(8/13~8/20)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4 (월)	박영환/장상길	렘 19:14-20:6	6교구
15 (화)	윤성복/김중훈	렘 20:7-18	전교인
16 (수)	김승래/전준호	렘 21:1-14	전교인
17 (목)	한규삼/김대학	렘 22:1-9	11교구
18 (금)	문진호/신준성	렘 22:10-19	3교구
19 (토)	신경철/신경철	렘 22:20-30	전교인
20 (주)	박요셉/박요셉	렘 23:1-8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지행) ②호차 9:40 감실역 3번출구, 10:20 야당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화요일집회는 쉽니다.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테홀(제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테홀(제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래몬홀(제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청년 1부	14:00~15:30	에스리홀(제3교 B301호)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니부	19:10~20:50(금요일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민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디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391	이윤아	영아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407	김원중	기본과정	정호진
2	1408	박영균	기본과정	
3	1409	조영권	에바다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405	서미자	기본과정	
2	1406	정수권	기본과정	
3	1410	최종원	기본과정	
4	1411	권아름	기본과정	

별 세	1. 임용식 타교은퇴장로(임병익 장로의 부친·이필재 권사의 시부, 4교구) / 6일 별세, 9일 장례 2. 김소형 타교권사 (양은혜 권사의 모친·장재순 안수집사의 장모, 9교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	--